美뉴스위크 '2021 세계 최고 병원' 선정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1 대한민국 최고 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이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왼쪽부터) 톱10에 오른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사진제공 |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대한민국 병원 1위'…고대안암병원 7위

〈3년째〉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산하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1 대한민국 최고 병원'에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뉴스위크는 2019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병원(The World's Best Hospitals)'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의 글로벌 통계조사그룹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25개 국 2000여 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美뉴스위크지 선정 '2021 한국 최고 병원' 톱10

순위	병원명	점수	세계순위
1	서울아산병원	97.62%	34
2	서울대병원	95.65%	42
3	삼성의료원	92.73%	73
4	연세세브란스병원	91.54%	76
5	분당서울대병원	88.86%	87
6	서울성모병원	88.00%	89
7	고대안암병원	86.35%	97
8	아주대병원	85.64%	100위권
9	경희의료원	85.55%	100위권
10	강남세브란스병원	85.53%	100위권

뉴스위크지 선정 '2021 세계 최고병원' 톱10

순위	병원명	국가	도시
1	메이요 클리닉	미국	로체스터
2	클리블랜드 클리닉	미국	클리블랜드
3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미국	보스턴
4	토론토 종합병원	캐나다	토론토
5	존스홉킨스 병원	미국	볼티모어
6	샤르테 대학병원	독일	베를린
7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스웨덴	소르나
8	싱가포르 종합병원	싱가포르	싱가포르
9	보돌스 대학 중앙병원	스위스	로잔
10	세바 베디컬 센터	이스라엘	라마트 간

※ 자료 | 美뉴스위크지 홈페이지

글로벌 순위 34위 3계단 상승
분야별 평가도 글로벌 상위권
美병원 초강세, 톱5중 4곳 차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제치고 첫 2위

서울아산병원은 뉴스위크 조사 첫 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대한민국 1위를 지켰다. 올해는 글로벌 순위도 34위로 지난해 37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다.

뉴스위크의 '세계 최고 병원'은 25개국 7만여 명의 의료전문가에게 받은 추천과 환자 만족도를 종합해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 보건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55%), 환자 만족도 조사(15%),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등 의료성과지표(30%)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내병원에 한해 환자 만족도 조사 항목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서울아산병원은 각 항목별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97.62%로 2위인 서울대병원을 1.97%포인트 차로 앞섰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해 뉴스위크가 발표한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에서도 6개 분야 모두 글로벌 상위권에 올랐다. 내분비 분야가 세계 4위로 가장 높았고 소화기 6위, 암 7위, 신경 8위, 정형외과 12위, 심장 36위를 기록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임상과 연구를 아우르며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해온 노력이 해외에서도 좋게 평가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삼성의료원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반면 2019년, 2020년에 2위였던 삼성의료원은 한 계단 내려왔다. 이어 연세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6위는 서울성모병원 7위는 고대안암병원이다. 8위~10위는 아주대병원, 경희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차례로 선정됐다. 그밖에 10위부터 20위에는 주요 사립대 병원과 국립대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고 병원은 美 메이요 클리닉

글로벌 병원 순위에서는 미국 병원들이 단연 강세였다. 1위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해 클리블랜드 클리닉, 하버드의과대학 메사추세츠종합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등 5위 안에 무려 4곳이 미국 병원이었다. 남은 한 자리는 4위의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이었다. 글로벌 톱10에는 이들 병원 외에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이스라엘의 병원이 한 곳씩 올랐다.

우리나라 병원은 34위의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42위), 삼성의료원(73위) 연세세브란스병원(76위), 분당서울대병원(87위), 서울성모병원(89위), 고대안암병원(97위) 등 7곳이 글로벌 100위 안에 진출했다. 101~200위에는 국내 톱10에 오른 아주대병원, 경희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중앙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8위의 싱가포르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글로벌 100위에 16위 도쿄대병원을 비롯해 성누가국제병원(18위), 가메다 의료원(48위) 등 우리와 같은 7곳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01~200위에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12곳의 병원이 들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척추질환 '허리디스크'…비수술 치료 '신경성형술'로 개선 가능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내생활이 늘면서 심리적 문제와 운동부족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으로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요추 사이 디스크가 탈출해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 주변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에서 많았으나 최근에는 구부정한 자세나 운동 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젊은층에서도 자주 발병하고 있다.

허리디스크의 75~80%는 주사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도수치료, 프롤로치료, 체외충격파, 신경성형술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신경성형술을 꼽을 수 있다. 추간공 주위에 엉겨 붙은 유착을 박리해 염증 유발 물질을 척추관 밖으로 배출하는 시술이다. 실시간 영상장비를 활용해 1mm의 카테터를 환부에 삽입해 약물을 투여하고 신경이 유착되고 압박되는 부분의 조직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좁아진 신경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

신경성형술의 장점은 국소마취여서 시술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아 환자에게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시술 후 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도 전신마취 부담이 없어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신경성형술로 증상이 완화되어도 바르지 못한 자세를 계속하면 재발할 수 있다. 척추는 다양한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기관으로 질환이 발생하면 신체 전 부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척추질환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정형외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모굿힐 정형외과전문의 **서준영**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세대교체로 변화 or 연임으로 안정
3월 임기 끝나는 제약바이오 CEO들

셀트리온은 사령탑 교체…종근당 연임 무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왼쪽부터).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제약바이오 CEO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12개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 셀트리온(1위), 유한양행(3위), 삼성바이오로직스(10위) 등은 이미 새 리더로 교체가 진행됐다.

셀트리온은 여러 차례 2선 퇴진을 밝혔던 서정진 회장이 지난해 말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과 김형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가 셀트리온 그룹을 이끌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당분간 명예회장으로 그룹 경영에 어느 정도는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수석 부사장은 26일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할 경우 등기이사에 오른다.

지난해 처음 '1조 클럽'에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도 9년 만에 물러났다. 회사 창립 때부터 기업을 이끌었던 김태한 사장에 이어 존림 부사장이 지난 해 말 사장으로 승진했다.

유한양행의 이정희 사장도 20일 주주총회를 끝으로 물러난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매출 1조6199억 원, 영업이익 843억원으로 취임 전인 2014년보다 2배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임을 했는데 연임횟수 제한을 둔 기업 정관에 따라 조욱제 부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오른 12개 기업 중 종근당 김영주 사장, 녹십자홀딩스의 허일섭 회장과 허용준 사장, 대웅제약 전승호·윤재춘 사장 등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난다. 이들 대부분 현재까지는 연임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녹십자와 종근당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고, 대웅제약도 힘든 상황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제약업계 특성상 '포스트 코로나'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변화보다는 연임을 통한 안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사장은 거취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인보사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사장이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1일(목) 음력: 1월 28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봉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이성간의 금전관계를 조심하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학업·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말띠에게 부탁하라.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 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옛날 나라에서 제향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걱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자신감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될 듯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다.	계절에 비유한다면 춘분에 해당하며,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틀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쓸쓸해지며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오늘의 날씨 11일(목)

서울 20/20	2 / 15	인천 20/20	3 / 12
춘천 20/20	0 / 16	강릉 20/20	5 / 18
대전 20/30	2 / 17	전주 20/30	3 / 17
광주 20/30	3 / 17	대구 20/20	1 / 18
부산 20/20	5 / 16	창원 20/20	3 / 16
제주 20/60	10 / 18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3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